

# 연이은 악재에 힘빠진 쿠팡... 지역 곳곳 ‘쿠릿고개’

## 영업정지까지 거론되자 입점 소상공인은 패닉 물류·유통 급감하면서 지역 일자리도 ‘빨간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맞물리면서 고객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악재로 쿠팡이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지역 곳곳에서도 그 여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텍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00만명을 웃돌던 쿠팡의 일간활성사용자(DAU)는 지난해 말 140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쿠팡에서 불

거진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고객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쿠팡이 내놓은 5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 쿠폰의 경우 쿠팡 트래블(2만원)과 명품 플랫폼 알렉스(RLUX·2만원) 등 객단가가 높고 판매 수수료가 낮은지 않은 부분에 가장 큰 보상을 배정하면서 소비자 반감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쿠팡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단기간에 급감하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일자리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반려동물 전용 가공식품을 제조해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최모씨(37)는 “쿠팡에 입점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했었고, 온라인은 부업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수익을 봤었다”며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약 3배 정도 크게 뛰었고, 수수료를 감당하더라도 수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쿠팡 사태 이후에 매출이 확 줄면서 사용자가 급감했다는걸 체감하고 있다”며 “쿠팡이 잘못이 큰 데다 이후 대응까지 문제가 되면서 그 여파를 나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영업정지까지 된다면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대체해야할 지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쿠팡은 현재 광산구 평동산단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첨단쿠팡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첨단물류센터는 축구장 22개 규모로 평동산단 부지 내에 전체 면적 5만평을 사용하며 2000여명의 광주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청년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쿠팡 사태 이후 물류 가동

력이 줄어들면서 채용에도 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물류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서모씨(32)씨는 “쿠팡 일자리 자체가 직업이라기 보다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젊은 친구들이 바빠 일하고 또 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돈을 버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보직에서 사람이 셀 수 없이 바뀌기도 한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크게 줄어 ‘쿠릿고개(쿠팡+보릿고개)’라 부를 정도라 들었다. 상황이 한 두 세대만에 확 달라진 것이 느껴질 정도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규제가 단순한 플랫폼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통, 물류 플랫폼에 이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분명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과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제재하되, 쿠팡과 연결돼 있는 모든 산업구조 및 노동자가 최소한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 전남 동부권 상공인 “경제 재도약 이끌자”

### 순천·광양상의 신년인사회…복합적 위기대응 의지 밝혀

전남 동부권 상공인들이 신년인사회를 열고 병오년 새해의 합찬 출발을 알렸다.

순천상공회의소는 5일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교육계, 언론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지역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고용안정과 기업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정대식 ㈜로텍스 대표이사가 순천상의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순천상의 회장은 “지난해 순천지역 경제 주체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고 병오년 새해에도 경제회복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계의 중지를 모으고 협력,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광양상공회의소도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가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다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과 유관기관장 및 상의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올해는 지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라며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광주신세계에서 만나는 ‘필코노미’ 5일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러쉬 매장에서 직원이 필코노미(필 feel+이코노미 economy) 트렌드를 겨냥한 호텔타월과 입욕제 등 고객 감성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소비자들 자신의 취향을 발견,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권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 aT, 식량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 신설

### ‘부’단위 조직 ‘처’로 격상...농산물 수급 불균형 등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1월부터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

형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aT는 지난 해에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품종 중

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추 김치가공 실증,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저장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부터 생산,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 중기부, 수출컨소시엄 선정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62개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출컨소시엄은 품목·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9억원(24.5%)을 증액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 중 현지시장 개척활동의 전략성, 경쟁력 등을 중점 평가해 62개를 선정했다.

선정 컨소시엄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뷰티와 패션 등 소비재 분야가 46.8%, 철강·기계금속 및 전기 등 산업재 분야가 38.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공략을 위한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 총 11개(17.7%)가 선정된 것도 눈에 띈다.

수출컨소시엄별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을 실시한다. 컨소시엄별 정보 확인과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 광주상의, 오늘 DJ센터서 신년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74년부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경제

계 대표, 기관단체장이 함께 모여 희망찬 새해 포부와 새 출발을 다짐하는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행사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자는 의지와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PRIMUM LIGHTING SYSTEM

#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은 진우엘텍!

“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



###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01<br>고객 상담<br>및 의뢰 | > | 02<br>현장 답사<br>및 설계 | > | 03<br>제품<br>생산 | > | 04<br>직접<br>시공 | > | 05<br>유지<br>관리 |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